

## HEADLINE NEWS

### 하이브리드 택시 확대 운행 (뉴욕)

2005년 11월부터 하이브리드 택시 6대를 시범운행하기 시작한 미국 뉴욕시는, 2006년 중에 13,000대 택시 중 약 2,000대를 새 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뉴욕시 택시 위원회는 이 기회를 살려 기존 차량들을 휘발유-전기 병용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폭 바뀌어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교통 지지 연합(Coalition Advocating Smart Transportation)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뉴욕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기본 택시차량으로 운행하는 세계 최초의 대도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스마트 교통 지지 연합은 2005년 7월 뉴욕시가 하이브리드 택시 법을 제정하도록 로비를 주도한 단체이다. 하이브리드 택시는 휘발유를 한번 주유하면 400마일을 주행할 수 있으며 기존 차량에 비해 연비가 80% 더 향상된다. 하이브리드 택시는 오염 배출이 기존 택시보다 낮고 연비도 향상되어, 뉴욕시는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비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www.sijournal.com/living/2094197.html)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최소비용으로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설계 대회 개최 (영국)
- ② 테러로 위축된 런던 시내 활성화 계획 (런던)
- ③ 인터넷 기반의 도시개발 현황 정보화 (런던)
- ④ 충전재개발과 뉴어바니즘을 도시정책으로 채택 (위스콘신주 매디슨시)
- ⑤ 미국과 캐나다의 우수 광장 12개 선정 (미국)

### 도시환경

- ⑥ 신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스코틀랜드)
- ⑦ 공기 오염과 사망률 관계 발표 (런던)
- ⑧ 도심의 소규모 태양열과 풍력발전소의 잠재력 발표 (영국)
- ⑨ 대기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 시장 형성 (시카고)

### 도시교통

- ⑩ 페선부지에 조성된 레일화된 버스길 (영국 케임브리지)
- ⑪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의 운행기록 시스템 도입 (영국)

### ① 최소비용으로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설계 대회 (영국)

영국 정부는 일반서민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고자 6만 파운드로 주택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주택설계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선정된 6개 회사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밀턴 케인스(Milton Keynes), 앨러톤 바이워터(Allerton Bywater), 뉴포트 패그넬(Newport Pagnell) 등 4곳에서 주택 약 1,000호를 실험적으로 건설 중이다. 이는 도시근교에 사는 시민들이 자가와 주택가격이 비싸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Planning, 2005. 11. 12)

### ② 테러로 위축된 런던 시내 활성화 계획 (런던)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구는 2005년 7월 7일 테러 이후 관광객과 방문객 수 감소로 발생한 5억 파운드의 경제손실을 만회하고 관광객과 방문객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7000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심부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런던의 레체스터 광장, 차이나 타운, 옥스포드 거리, 코벤트 가든, 극장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레체스터 광장은 새로운 공공공간으로 물리적인 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차이나 타운 지역에는 보행자전용 거리를 확대하고, 다른 지역은 리노베이션을 할 계획이다. 구 담당자는 도심부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런던올림픽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lanning, 2005. 11. 4)

### ③ 인터넷 기반의 도시개발 현황 정보화 (런던)

영국 런던시장은 도시계획가나 일반인들도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또한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런던 전역의 도시개발 현황을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식 발표했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2000년부터 있었던 런던의 여러 개발지역 정보를 일반인과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알고 싶은 개발현황 지역의 우편번호나 인터넷상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Planning, 2005. 12. 9)

### ④ 충전재개발과 뉴어바니즘을 도시정책으로 채택 (위스콘신주 매디슨市)

미국 위스콘신(Wisconsin)주 매디슨(Madison)市는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충전재개발(Infill Redevelopment)과 뉴어바니즘(New Urbanism) 도시계획을 市의 공식적인 도시정책으로 채택했다. 충전재개발을 통해서 기존 구시가지의 빈 공간과 이용률이 낮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밀도를 상향조정한다. 교외 지역의 신주거지에 주로 적용되는 뉴어바니즘 전략은 혼합용도와 압축개발을 통해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고 농지와 오픈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www.madison.com/ws/home/local/index.php?ntid=64784&ntpid=3](http://www.madison.com/ws/home/local/index.php?ntid=64784&ntpid=3))

### 5 미국과 캐나다의 우수 광장 12개 선정 (미국)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공공장소를 위한 프로젝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우수한 광장 12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우수 광장에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조지아주 사바나, 디트로이트, 몬트리올 등에 있는 중심광장들이 포함되었다. 선정기준은 광장의 편리성, 안전성, 공간 이용비율, 이용자의 특성, 기후조건에 따른 이용현황 등이다.

([www.pps.org/info/newsletter/december2005/us\\_canada\\_squares](http://www.pps.org/info/newsletter/december2005/us_canada_squares))

### 6 신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가장 큰, 신형 재활용 에너지 발전소인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가 스코틀랜드 남부지역인 로커비(Lockerbie) 지역에 2005년 말 건설됐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산림에서 나오는 나뭇잎, 농업쓰레기, 잡초 등 주로 자연과 산업에서 나오는 생물학적인 쓰레기를 이용한 발전소다. Biomass Task Force는 영국에서 매년 200만 톤의 목재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목재쓰레기만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는 연간 5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The Carbon Trust는 밝혔다.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간 4400만 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7만 호 가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다.

(Planning, 2005. 12. 16)

### 7] 공기 오염과 사망률 관계 발표 (런던)

영국 Environmental Agency는 공기 오염이 한 해 약 3만 2천 명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공기 오염이 6개월 정도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영국 어린이의 37%는 WTO가 정한 다이옥신(Dioxin) 양을 초과하여 흡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존 파괴로 한 해 1,300명이 사망하고 850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수질오염은 약 360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Planning, 2005. 11. 25)

### 8] 도심의 소규모 태양열과 풍력발전소의 잠재력 발표 (영국)

영국 Energy Saving Trust는 소규모 태양열과 풍력발전소와 같은 친환경적인 발전소(Microgeneration)를 학교와 가정, 상업시설에 설치하면 영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3분의 1을 절약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발전소 설치를 통해 2050년까지 영국 전체 전력수요의 30%에서 40%까지 공급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양을 15%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Planning, 2005. 12. 16)

### 9] 대기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 시장 형성 (시카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市에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오염물질 거래를 위한 CCE(Chicago Climate Exchang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에 있는 조이스 재단의 후원과 시카고市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장에 기초한 대기오염 저감전략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www.chicagoclimatex.com)

### 4] 폐선부지에 조성된 레일화된 버스길 (영국 케임브리지)

영국 케임브리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 대중교통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케임브리지市는 폐선부지를 세계에서 제일 긴(23km) 레일화된 버스길(Guided Busway)로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중 19km는 레일화된 버스길을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 친환경적인 통합 패턴의 인프라를 형성하여 이 지역 성장에 큰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市는 이 버스길이 개통이 될 경우 10년 안에 매일 2만 명이 사용하게 될 것이며,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도시를 연결하고 대중교통 사용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Planning, 2005. 12. 16)

###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의 운행기록 시스템 도입 (영국)

영국은 새로운 국가 감시 시스템(National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일반도로 할 것 없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도로상에 설치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번호판이 읽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되어 저장된다. 이 자료는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되며 경찰과 국가방위 업무를 위해 이용될 예정이다.

([news.independent.co.uk/uk/transport/article334686.ece](http://news.independent.co.uk/uk/transport/article334686.ece))